

동향과 전망

세종학당 이해영 이사장님 인터뷰 대담

세종학당 이해영 이사장님 인터뷰 대담

일시: 2022년 11월 25일

참석자: 이해영(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노상호(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집위원장,
국제학부 글로벌한국학 부교수)

녹취 및 편집: 이신애 (편집간사)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교육과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한류 열풍으로 인한 관심과 다양한 학습 목적을 가진 세계인들에게 <세종학당>은 소통,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교육을 통해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꿈을 지원한다. 지난 해인 2021년 9월 28일 세종학당재단에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해영 이사장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한국문화연구원 26대 원장)에게 한국학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여쭙고자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최일선인 세종학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재단에서 보는 한국학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1. 세종학당 소개

노상호: 이사장님, 우선 세종학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영: 네, 세종학당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해외 세종학당을 지정, 운영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프라인 세종학당 지정과 운영, 현지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 자료 개발, 국외 한국어 교원 파견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과 재교육, 온라인 세종학당과 메타버스 세종학당 서비스, 모바일 학습 앱 개발, 한류 스타 활용 콘텐츠 개발, 통번역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단계적 적응형 한국어 평가 시행 등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 사업 중 한국문화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업으로는 ‘세종문화아카데미’나 ‘문화인턴’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종문화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단은 대중문화 전문가는 물론 판소리 명창과 같이 전통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과 협업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취업, 유학, 자기계발 등 다양한 학습 목적을 가진 세종학당 학습자가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장학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현황

세종학당은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 현판이 사료적 가치가 있으니 그것을 다시 공수해 와야 한다는 등의 얘기도 농담처럼 나올 정도로 그간 세종학당의 변화는 컸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그 수의 증가입니다. 2007년 13개소로 출발한 세종학당 수는 현재 84개국에 244개소로 1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 세종학당의 학생 수는 8만 1,476명으로, 740명으로 시작했던 2007년과 비교해 보면, 15년 만에 1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세종학당 누적 수강생은 58만 명에 이릅니다.

-신규 세종학당-

올해 재단은 19개 나라에 23개소의 세종학당을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신규 23개를 포함하여 올해 총 244개소가 운영되게 되었는데요, 대륙별로 보면 예상하실 수 있듯이 아시아가 제일 많아서 139개소, 그리고 유럽도 57개소가 되고요, 북남미에 32개소, 아프리카에도 12개소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는 그동안 세종학당이 설치되지 않았던 7개 국가에 신규로 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한국과의 교역 증가 추세가 반영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같은 아랍권,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니지와 같은 아프리카, 룩셈부르크, 핀란드와 같은 유럽에 새로 설치된 것인데요, 가령, 왕족이 총장으로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술탄대학교(Prince Sultan University)를 포함한 이들 신규 세종학당들은 올해 8월 서울에 와서 한지로 만든 지정서를 받고 적극적인 한국어와 한류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학습자의 증가가 가져온 새로운 학습 방식-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학당 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학습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작년 집계를 보면 등록 대기자가 11,000명이 넘어요. 재단에서는 오프라인 세종학당을 늘리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방식의 수요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죠. 가령, 온라인과 같은 방식이죠. 최근 이화여대나 연세대와 MOU를 맺고 '온라인 세종학당'을 확대 시행하게 된 것도 학습 수요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재단에서는 올해 한국어교육

분야 최초로 확장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구축했는데, 이 또한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수요 대응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학습자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배우기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영상을 보거나 줌zoom을 통해 수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히 MZ 세대들은 메타버스를 즐기며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죠. 저희 재단에서 메타버스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자마자 한달 사이 벌써 56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즐기고 또 경험해 보고 싶은 거죠. 그 인구는 점점 늘어나겠죠. 학습자들은 메타버스 상에서 한국어 학습도 하지만 한국문화 실감형 콘텐츠 탑재하여 실감나는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또 한국어를 사용한 게임도 해요. 가령, 한국어 퀴즈를 풀면서 하는 방탈출 게임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또다른 재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Q2. 메타버스 수업에 관하여

노상호: 네, 말씀하신 김에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메타버스는 보통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이 직접 진행이 되는 건가요?

메타버스 수업의 특성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소통과 교류-

이해영: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은 많은 경우 게임이나 SNS로부터 출발하여 오락이라는 이미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에 접목시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지요. 메타버스는 이미 산업계,

의료계는 물론 교육에서도 23% 정도 활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이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학습자로 하여금 놀랍게도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한국어 소통과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일반 백성들에게 문어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 모국어 번역을 통해 전 유럽에 보급된 것과 같이, 정보의 보급과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이죠. 저희 세종학당재단에서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 역시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누구든지 한국어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역시 주목되는 것이지요.

-환경을 살리는 미래지향적 교육 모델-

요즘 ESG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에도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의 활용은 종이 교육용 자료를 생산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 한글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세종학당체’를 개발하여 해외 보급한 것도 역시 저희 재단의 ESG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는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으로 유명한 플랫폼에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과 오락적 기능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재단은 ‘젍Zep’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자이너들이 작업하여 오락을 넘어서는 세종학당 캠퍼스를 탄생시켰습니다. 메타버스세종학당 캠퍼스의 주요 구성을 보면,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실과 강당, 도서관, 자료실이 있고, 또한 한국문화 실감형 콘텐츠 상영 및 각종의 행사가 가능한 행사동과 문화체험관은 물론 AI 캐릭터 한국어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 한국어 퀴즈

방탈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2022년 11월 25일은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개원식이 있는 재단 차원에서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플랫폼을 통해서 모인 청중을 위한 축하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https://zep.us/@ksif>에 들어가시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3. 한국학의 동향에 관하여

노상호: 아주 선도적인 사업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사장님께서 아무래도 학교에 계실 때와 달리 지금은 정부 기관에서 현장에서 직접 관여하시는데 해외에서 느끼신 한국학의 올해의 변화, 혹은 특히 주목할 만한 수요 등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중적 관심에서 전문적 관심으로

이해영: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은 현지 국가의 학문적 요구로 자생적으로 발생, 전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국내 전문기관의 공공외교적 지원이 초석이 되고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는 대중적 수요를 만나 왕성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 한류 바람이 불면서 초중 등, 더 나아가 고등 교육 전반에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한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사가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로 이어졌고, 또 이렇게 취미로 한국어 학습을 했던 학습자들이 전문적인 관심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목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한국문화에 대한 단순한 관심은 23.1%로 여전히 상위권이었지만, 한국 유학은 30.4%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어요. 취미와 호기심에서 출발한 한국어 학습이 학문적 목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들의 미래 설계와 관계 맺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학습자가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면서 한류 소비자에서 더러는 생산자로, 또 누군가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의 목표 지점을 다양화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국어로 연구하는 한국학’의 가능성?

최근 해외 대학에서는 한국학 진작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어로 번역된 한국학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집적된 모든 한국학 자료가 완벽하게 번역되었을 리 없으니까요. 재미있는 경험담을 이야기해보면, 예전에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국제교류재단 학술대회와 올해 동 기관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사용된 공식 언어, 영어와 한국어를 대하는 학자들의 태도에 슬그머니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어가 주 언어였다면, 이번에 보니 한국어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좌담회 토론자가 영어로 발언을 시작하다가 돌연 한국어로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있고 영어와 한국어가 공식 언어였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한국학자들의 한국어 능숙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한국학자들이 한국어의 능숙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한국학이 꼭 영어로만 연구되어야 하는 시대는 변화의 기로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에 초대되었던 미국 한국학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에서 일본학이나 중국학은 일본어와 중국어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학만 달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류의 영향이든 우리 기업의 선전이든 이제 한국어는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각색된 2차 자료 보지 않고 직접 한국어로 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한국어’에 방점이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초급 한국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 단계에서 벗어나서 학문 목적(academic purpose)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어 학습까지도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발견됩니다. 제가 이화여대 국제처장으로 있을 때 시작했던 베트남 국립하노이외국어대학교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과 한국학과의 한국문화 전공 석사과정 협업 논의가 있었잖아요. 우리 학과장님(노상호 교수)께서 그 당시에 정말 굉장히 큰 힘이 돼 주셨는데, 이와 같은 협업도 해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교육하는 한국문화 전공 석사 과정 운영 요구가 최근 들어 아주 급하고 강렬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수요가 아직은 어떤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만, 한국학을 하면서 한국어를 모르고 한다면 깊이 있는 연구나 교육이 불가할 것이라는 라이덴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의 언급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잠시 여담을 말씀드리면, 노상호 학과장님, 저와 함께 만들었던 ‘라이덴 인턴십’ 기억나시죠? 한국어 입력을 증폭시킬 수 있었던, 이 인턴십이 라이덴대학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국학 교육을 위한 준비

사실 한국어로 한국학을 연구하거나 대학에서 한국어로 된 한국학 교재를

읽으려면 대학에서 조금 한국어를 배우는 실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 신입생들이 한국어를 ‘가나다라’부터 배우지 않아도 되고, 중고급의 수준의 한국어 학습에서 시작하게 되면 좀더 깊이 있는 고급 한국어 텍스트를 읽어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음 단계로 결국 외국인들의 감각과 눈높이에 맞는 한국어로 된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 경제 등등, 이런 전문 교양서들에 대한 요구가 해외 대학 현장에서 들리는 것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다룰 수 있는 한국어로 된 교재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도 한국어에 대한 소개의 글을 소통의 관점에서 쓴 적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은 <한국의 이해>라는 책이고 남미에서 사용될 대학 교재라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은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보급된다고 하는데, 조만간 한국어로 된 책도 필요로 하겠죠. 해외 대학들은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보다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Q4. 연구 기관의 역할에 관하여

노상호: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의 한국학의 수요가 몇몇 소수의 연구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TV방송이라든지 학교 수업 지원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원장님을 하셨지만 한국문화 연구원은 어쨌든 한국학 전문 연구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연구 기관과 대중적인 수요 사이에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사장님께서 태국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전문 연구 기관이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혹시 현장에서 보시면서 생각해보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영: 네. 사실 한국문화연구원과 같은 연구 기관들과 협업해야 할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연구 결과가 연구자들만의 전유물로 끝나기에는 이롭다는 원론적 이유 말고도요. 한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사에서 출발한 세종학당 학습자들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한국문화의 전반적 현상에도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화연구원과 같은 한국학 전문 연구 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저희 재단의 '세종문화아카데미'나 '문화 인턴'은 물론, 각종의 문화 교재 역시 전문 기관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제공되기 어렵지요. 실제로 멕시코의 세종학당에서 경기민요 전수자도 나왔고 프랑스 세종학당에서는 판소리 소리꾼도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만난 문화 전문가, 문화 인턴의 영향으로 꿈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학 연구 기관에서는 해외 학습 수요에 맞는 연구를 진행해 주시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콘텐츠를 연구하시고, 또 어떤 연구자들은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교육하는 저희 세종학당은 물론 세종학당이 개설된 해외 대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런 협업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 전문가로 파견되어서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하게 됩니다.

Q5. 대학기관의 지원에 대하여

노상호: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연구원 원장님도 하시고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도 하시니까 양쪽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포함해서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해영: 너무 진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요, 해외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건 ‘자료가 부족하다, 전문가가 부족하다’입니다.

현지인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그런데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과연 한국에서의 지원만이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현지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확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에서도 현지인 전문가가 양성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현지의 부흥과 지속가능성은 현지 동량지재(棟梁之材) 양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대학 유학을 통해서, 또는 국외 대학의 스스로의 인재 양성을 통해서 외국인 전문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희 세종학당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현지 교원 양성과 연수를 통해서 현지의 지속 가능한 한국어교육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대학들의 참여와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덕분에 참고로 세종학당 교원 911명 중 현지 교원은 639명에 이릅니다.

Q6. 세종학당재단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노상호: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국학이 해외에서 지속 가능하게 정착하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또 독립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저도 깊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혹시 내년에 추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년 사업의 세부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비록 세세한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재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은 세종학당의 지정과 운영입니다.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재단은 세종학당 미지정 국가 진출 및 수강 대기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세종학당 설치에 주력하고자 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가치 실현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국내외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과 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와 같이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과의 협업도 꾸준히 이끌어내어 안정된 현지 지원체제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 발굴과 해외 현지 수요에 최적화된 지원을 위해서 재단은 전략적 필요처에는 거점 세종학당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미국,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4개의 거점 세종학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바, 해외에서의 지속가능한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원의 역량 강화와 우수 학습자의 발굴 및 우수 학습자의 미래 비전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재단은 국내외 교육기관은 물론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을 비롯한 재외동포 교육기관, 그리고 국내외 기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장학, 인턴십과 취업 연계 또한 진지하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국내 대학 및 한국문

화연구원과 같은 연구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단체와 연구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다양한 미래매체 기술을 활용한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 플랫폼 전환을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래 매체인 메타버스와 세종학당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접목시켜, 학습자 및 교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어 학습의 혁신을 주도할 것입니다. 작년에 도입한 세종한국어평가(SKA)는 응시자의 실력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되는 단계별 적응형 평가(CAT)로 발전시켜 응시생의 언어능력을 찾아주고, 한국어의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는 연구진, 교수님들의 연구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단의 목표 달성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문화연구원, 한국어 교육 기관, 대학 연구 단체 등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관련 연구 사업들을 내년에도 다수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목록 공개에 이어서 연중 공모되는 연구 사업들에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연구자와 교육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학술적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상호: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들이 많아서 내년에도 기대를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이사장님을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